

지속가능발전 도시,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위기 청소년(女)의 안전, 건강, 역량강화(S.H.E. project)사업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목적 및 배경

가출 청소년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 인터넷 보편화와 손쉬운 접근성을 매개로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주요 아젠다(Agenda)로 부각되었다.

가출 청소년에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18% 정도가 성매매의 경험이 있었고(서울시, 2015), 이들 중 8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며, 이들은 안타깝게도 의식주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 2012). 이들은 불규칙한 가출생활 및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취약(서울시, 2013)했고, 중·고등학교 중퇴·휴학 등의 저학력으로 취업 및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가정폭력 등 갈등적 환경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재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9층

전 화 02-2133-5039

팩 스 02-2133-0729

이메일 women@seoul.go.kr



이에 서울시는 가출 소녀들을 성산업에 이용하는 것을 중대한 민생침해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 등의 협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참여,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시도하였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기가 개인의 발달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차별과 성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 제한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적 관점이 근간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했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정책 대상으로서 여자 청소년 지원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 청소년(女)의 안전, 건강, 역량강화 (S.H.E. project)사업은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통해 위기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과 실질적 자립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및 성매매 등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출산 시대 지속가능발전 도시구현을 위해 양성 평등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와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안정적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나아가 수요자의 욕구와 현장 중심성, 특히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방향성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내용

[사례 1]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안전망(Safety) 구축 :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IT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성산업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보급율이 높은 한국에서 무분별한 온라인 상의 불법 성산업의 광고 영향은 손쉬운 접근성과 개방성, 익명성 등 인터넷이 가진 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온라인 채팅'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자체 최초, 대규모 시민 감시단 운영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위해 대규모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2011년 6월 발족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같은 불법 및 유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모바일 상의 음란성 SNS 정보 신고, 성산업 밀집지역 대상 불법 음란성 전단지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온라인 및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로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은 여성의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여성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대규모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1년 255명으로 시작된 시민감시활동은 2015년에는 4배 이상인 1,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부, 대학생, 직장인들 남녀노소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서울시 전역과 인터넷 전반에 광범위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자조모임 지원, 모니터링 교육, 격려문자 발송, 봉사시간 인정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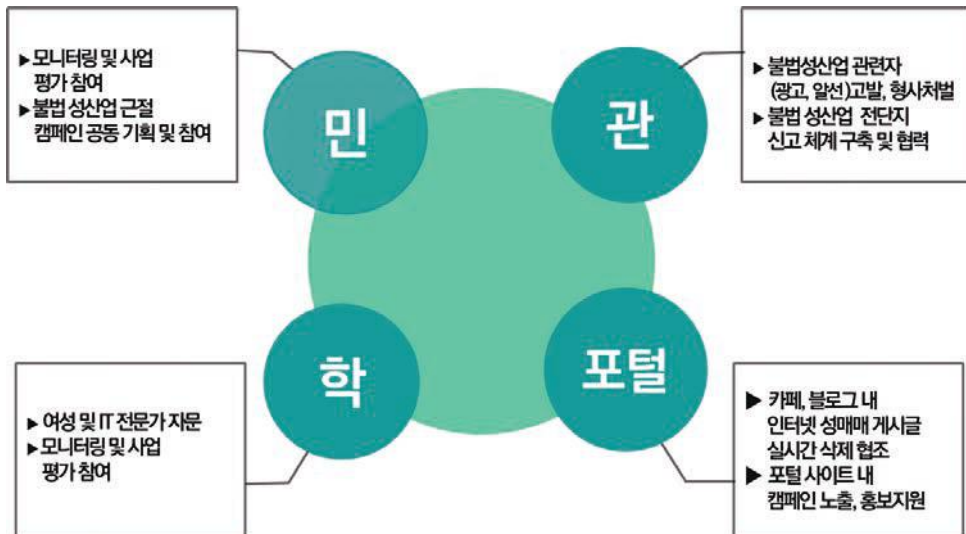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단한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참여 방법의 확장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더라도 참여방법이 복잡하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 조장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감시단 모니터링 → 서울시 취합 및 신고 → 관련 기관 처리'의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였다. 또한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전단지 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시스템 마련하여 신고 건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민-NGO-서울시-경찰청-민간기업(포털 및 통신사) 핫라인 시스템 구축

광범위한 감시망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2년 시민, NGO, 서울시, 경찰청, 네이버 등 5대 포털사(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와 여성폭력방지 업무협약을 맺고 핫라인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에는 기존 포털사 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사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도록 2013년 8월에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통신 3사(KT, LG U+, SK텔레콤)와 업무협약을 맺어 성매매 광고 전단지 이미지만으로도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적극적인 감시활동 결과, 2015년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및 게시물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규제 처리 건수는 40,436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 269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에 비해 150배나 증가한 수치였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활동 전개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시민의 일상 속에 침투한 불법 성 산업에 대한 감시망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NGO, 경찰, 공무원, 학계, IT 전문가들과 함께 성매매 방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정보공유 및 단속 협력, 연계 방안 논의 등의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정립 및 연대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의 역할 정립 및 연대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 지하철 및 옥외 광고, 시민들이 주도한 거리 캠페인 실시, NGO단체들과 함께 불법 성산업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쳤다. 또한 불법 성산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가출 청소년 건강실태 등 자체 조사발표 등을 통해 담론화를 주도하였다. 무엇보다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시민 감시망은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성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시민들의 일상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

[사례 2] 건강권 향상(Health)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관계 만들기

글로벌 경기 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은 가정의 돌봄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가정 해체, 빈곤, 학대, 폭력 방임 등에 놓인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양산했으며, 불규칙한 거리 생활은 결식, 수면 불균형, 음주, 흡연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의식주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산부인과 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 우울,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 등의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았다.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의료지원 :

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

신체·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기 쉽지만 치료할 곳이 없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을 개소하였다. 청소년건강센터에는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과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및 건강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에서 병원 연계나 의료비 지원 등의 소극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발굴하는 등의 자원 개발, 협력 체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열린 공간 : 소녀돌봄약국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위기 청소년의 건강권은 질병 유무에 국한 되지 않고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외부 환경 및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발생 사후에 대처하는 최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의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청소년 개인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교사 측,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의 역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이웃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을 임파워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원 발굴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하나의 사례는 바로 여약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소녀돌봄약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여성단체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시여약사회가 “지역 곳곳에 언제든, 청소년들을 도와줄 좋은 어른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약사님들의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바람을 사업화하기 위해, 청소년 건강 TF가 꾸려졌다. 서울시, 청소년 관련기관 전문가, 청소년건강센터, 교사, 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뤄 사업계획에서부터 약국모집, 약사교육, 사업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에 개입하였다. 2014년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한 8개 자치구에서 시작된 소녀돌봄약국은 2015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200여개 곳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일반의약품지원, 건강상담, 의료기관 및 지원시설 연계 등의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건강 정보 접근성 강화

건강사각지대 발굴과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희망복지지원팀, 동주민센터,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의료 전문가들인 의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협, 여성단체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인 자원 개발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안적인 건강용품 이용에 대한 캠페인, 의료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기관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성건강 교육,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강 아웃리치 등을 전개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다각적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인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사례 3】 자립기반 확보(Empowerment) :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관련 인터뷰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 저학력에 기술도 없어 안정적인 취업은 생각도 못하고, 단순 저임금 직종(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의 노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직업 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 역시 적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실질적인 자립 수단을 제공하고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들의 인성을 증진하여 자신의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력을 강화해주고 일자리 진입까지 연결해 줌으로써 자립적 존재가 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 전용 드롭인센터(나무)는 안전한 마을, 가출 청소년들을 보듬고 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 상담카페는 청소년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마을 주민이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위기 청소년과 십대 멘토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십대 또래 모임 운영, 위기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관·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위기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인턴십 아카데미〉는 서울시-기업-NGO가 위기청소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한 대표적 사업 중의 하나다. 서울시와 (주)벽산은 운영비 지원과 후원에 그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계획에서 진행, 평가 등 사업운영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주)벽산은 임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입직원 교육 중 ‘위기 청소년의 실태 및 이해’, ‘새날에오면 기관 방문’,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필수교육으로 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벽산 및 생산 공장 등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매해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직업체험 축제 Show me the jobs!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수공예, 바리스타, 영상 미디어 등의 직업체험, 진로 적성검사 및 상담 등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물론 (주)벽산 인사담당자가 이력서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모의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위기 청소년 전문가들은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립 욕구에 비해 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며, 전문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무엇보다 개인별 역량차이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단계에 맞춘 자립 프로그램과 특히 일과 교육(학력취득)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자립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시-(주)벽산-새날에오면’ 공동제안으로 학업지원에서 일경험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립 복합 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주)벽산은 자립지원 복합 공간 건립비용을 지원하며, 새날에오면은 신축 및 기부채납된 공간을 이용하여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 협약을 2015년 11월 체결했다. 위기 청소년 자





립복합공간 <늘푸른교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직업 체험장, 훈련매장, 교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평가와 과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조직 인프라 구축

2000년부터 여성정책담당관 내 전문직 팀장, 직원 6명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 파트너십 및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 수행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 및 국회 등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2012) 및 개정(2016),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의제수립에서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시민, 민간단체, 기업 파트너십

위기 청소년의 안전, 건강 역량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민간단체와 기업 등과 유연하고 밀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 흩어져 있는 자원, 정보,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법 성 산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도, NGO, 경찰, 공무원, 학계, 현장 실무자등 위기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성매매 방지 협의체>가 그 빛을 발했다. NGO 단체들은 시민들의 인터넷 감시활동에 대



해 위협이 되는 요소와 사업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IT분야 전문가들은 신고-처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청에 운영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시민 활동단이 직접 작성한 고발장에 대한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 또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가출 청소년 실태조사 및 토론회 실시로 현황 파악 및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감시활동 참여자 등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성 산업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성매매 광고 전단지,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사업 및 의견들은 '서울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출 및 성매매 경험자, '비행 청소년'라는 낙인은 인턴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가 직접 위기청소년의 직업 체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CJ Food Vill과 SK-Teolcom 등 대기업과의 멘토링 협약을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마련하였다. 특히 (주)벽산의 경우 2013년부터 3년간 위기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서울시와 공동지원하면서 수차례 업무회의, 프로그램 참관 등을 통해 사업 의미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참여하면서 2015년부터는 건물 건립 후원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후원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365MC, 매일유업, 대한제지 등), 참여의 수위도 물질적 후원만이 아닌, 참여방식

의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는 기획, 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사업주체로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에너지를 공유한 결과였다.

수요자 욕구(needs) 반영 및 사업 대상자의 접근성 강화

가출 및 위기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55%)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2015)를 반영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생식 건강의 문제를 인식해도 산부인과 등의 병원 이용률이 낮고, 낮 시간대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 아웃리치, 야간진료 진료 실시 및 협력 방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사업 개발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자립학교 운영 초기 학업에 흥미가 없어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자, 주 1회 자치회의를 기획하여 학생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과 상벌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학생 스스로가 듣고 싶은 수업을 신설하여 학습 욕구를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립훈련매장 역시 '만들어준 매장'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매장'으로 만들어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경우, 여성의 참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한 참여방법의 확장을 시도했다. 문제는 '참여 의사'가 아니라 '참여방법'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주부, 직장인,

대학생으로 과외 시간을 통해 감시활동에 참여를 원했으며, 참여 방법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끝까지 참여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활동과 모임을 구성하도록 지원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감시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성산업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여성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성산업을 여성인권 침해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을 했다.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문제를 시민의 일상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상화 되어 있는 불법 성산업을 또 다른 여성폭력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성인지적인 관점에 기반한 정책 설계는 불법 성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를 확산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감시활동의 필요성과 불법 성산업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절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주도의 다양한 캠페인 실시(여성 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마을,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요! 릴레이 캠페인, 지하철 광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과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남성시민들의 참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다각적 변화 시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청소년건강센터, 불법성산업감시본부, 청소년성매매전문상담소(특별전담실), 청소년전용 드롭인센터, 인턴십센터 등의 설치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을 주



도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또한 위기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별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이 처한 위기의 맥락과 사회적 위치성을 고려하고, 청소년 스스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역량 강화의 측면으로 접근한 결과였다.

이러한 불법 성산업 관련 정책이 호응을 얻자 부산, 대구, 대전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2012년 광주우 국제도시혁신상에 선정되어 여러 도시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서울시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치사업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의제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